직장인 극단 DL
(Dramatic Life)

낮엔 일터서, 밤엔 무대서

삶이 드라마틱해 집니다

지난 1월 공연 했던 첫 작품 '굿 닥터'.

김 선생 : 나한테 뻐꾹 뻐꾹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그래.

이 여사 : 아, 그거야 동네에 워낙 뻐꾸기가 많고… 그게 젤로 자연스러우니까 그랬죠. 그렇다고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저녁으로 뻐꾹 뻐꾹해대시면 어떻해요.

김 선생 : 그래서 우리집에 새벽부터 와가지고 꼬끼오 꼬끼오 했나?

이 여사 : 내가 언제요. 언제요?

지난 2일 밤 9시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E마트 건너편에 위치한 '극단 연인' 사무실. 12명의 20~30대 남녀가 손에 연극 대본을 들고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오는 12월 예정인 공연을 앞두고 대본 읽기를 하고 있는 이들은 직업 연극배우가 아니다. 이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근 후 연극활동을 하는 '직장인 극단 DL(Dramatic Life)' 의 아마추어 연극인들이다.

연말에 무대에 올릴 작품은 '사랑에 관한 다섯 가지 소묘'(위성신 작). 인생의 황혼기에 이민 가려는 할머니와 이를 말리는 할아버지 등 다섯 쌍 남녀를 통한 애틋하고 정겨운 사랑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했다.

지난해 5월 창단이래 벌써 세 번째 작품이다. 창단 작품으로 올 1월에 '굿 닥터'(닐 사이먼 작)를 무대에 올렸고, 이어 지난 6월에는 '낙하산'(권호웅 작)을 선보였다.

"중·고교시절 교회연극을 하며 재미있었는데, 그 이후 기회가 없다가 문득 다시 연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박정민·32·전남대 박사과정)

"직장생활을 하며 '좋아하는 것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에 우연히 카페를 검색하게 됐습니다"(김보영·24·중등 국어교사)

여러 가지 이유로 연극을 해보고 싶다는 '꿈틀거리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던 이들 직장인들은 '문득','우연히' 포털사이트에서 '광주'와 '연극' 단어를 조합, 검색해 '직장인 극단 DL' 문을 두드리게 됐다. 사무직·대학원생·교도관·교사 등 다양한 직종의 20~30대 초반 직장인 20여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직장인 극단 DL'은 김종필(38) 극단 연인 대표로부터 비롯됐다. 연극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생활을 10년 가까이 병행했던 경험이 있는 김 대표가 자신의 경우를 감안해 인터넷 카페(cafe.daum.net/DramaticLife)를 개설한 것이다.

김 대표는 "연극에 대한 생각을 가슴에 꾹꾹 누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연기를 지도하고 연극의 제반사항을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첫 모임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정도로 주위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다음번 모임에 4명이 온 것을 시작으로 연극에 '갈증'을 느낀 직장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그 이후 4 개월간 퇴근 후 맹연습을 한 끝에 첫 작품을 무대에 올릴 수 있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대사연습을 하다 상사가 들어와 '혼자 뭘 중얼거리냐'며 이상하게 쳐다보고, '왜 늘 피곤하다가 극단 갈 때만 힘이 넘치냐'는 부인의 핀잔을 듣기도 했다.

사무직·교도관·교사 등 20여명 활동
12월 세번째 작품 공연 앞두고 맹연습
"매우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듯 해요"

첫 공연 후 어느 단원은 "매우 행복한 꿈을 꾼 듯 하군요. 피곤하지만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네요. 이 야릇하고 환상적인 기분을 새벽 내내 간직하고 싶습니다"라고 카페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연극을 하며 개인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주위에서 '활달해졌다'는 평가와 '동작(모션)이 커졌다'는 말을 들은 이도 있고, 스스로 안 해보던 일을 하니까 숨통이 트이고, 학생 지도 등 실제 생활에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등 긍정적 반응이다.

지난 8월에 합류한 김현중(36·목포교도소 교도관)씨는 "수용자들을 상대하면서 때론 친구 같은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아버지나 아들, 선생님 등 다양한 역할의 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예전에는 강압적이었다면 지금은 연극 경험을 직장에 다양하게 적용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요즘 단원들은 매주 목요일 퇴근 후 모여 3시간씩 대본 읽기 등 공연 연습을 하고 있다. 2명씩 짝을 지어 감정을 넣어 대사를 읽는 도중 김 대표가 박원일(23)씨에게 "나이가 어려서 느낌이 안 난다"고 말하자 한 단원이"결혼을 해"라고 말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다.

'드라마틱한 삶'을 꿈꾸는 '직장인 극단 DL'의 올 겨울 무대는 어떤 모습일까 자못 궁금하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직장인 극단 DL'단원들이 오는 12월 무대에 올릴 작품 '사랑에 관한 다섯가지 소묘'를 연습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안병우, 최주현, 양헌영, 김미경, 임수현, 김보영, 박정민, 문세미, 김종필 대표, 김현중, 김인선씨.